

### 1. 哲學과 倫理

우사이 일부 간호원들 중에는 倫理라는 같은 옛날 사람들의 낡은 思考에서 오는 구식도덕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 한편 哲學이란 말을 많이 쓰면서 看護哲學이 看護倫理의 진보적인 用語인듯 잘못 판단하는 경우까지 본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셋째 ; 철학과 윤리는 같지 않다는 점과, 둘째 ; 그러나 철학과 윤리는 깊은 관련성 혹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셋째 ; 간호원은 간호에 대한 철학도 정립 되어야 했고 간호원으로서의 윤리관도 확고해야 한다는 점과, 넷째 ; 윤리에는 실천과정이 중요하다는 점들이다.

윤리학은 넓은 의미의 철학의 한분야인데 최재희교수는 그의 倫理學原論에서 “철학을 理論哲學과 實踐哲學으로 나눈다면 실천철학의 별명을 윤리학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특히 윤리학은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人間關係에 기본을 두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심을 인간 공부에 두어야 되는 점이다.

간호학도로서 철학을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학과 科學의 성격을 간단히 복습할 필요가 있겠다.

철학과 과학은 출발점으로 부터 밀접한 관계를 가졌고 또한 이 관계가 너무나 밀접한 까닭에 오히려 혼돈하는 경우까지 생긴다고 한다. 그러나 철학과 과학이 서로의 주장을 반대하고 부인하는 입장이 아니며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데서 전체적인 조화와 진진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철학과 과학을 간단히 상식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철 학	과 학
① 철학은 價値와 意味의 學이다.	① 과학은 事實과 存在의 學이다.
② 인간이 認識과  경험을 통하여 목적과  의의를 찾고자 통일된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한다.	② 자연이나 사회현상의 개별부분을 분석하면서 부분적 대상을 연구한다.



## 간호원을 위한 職業倫理

- 철학과 윤리
- 도덕적 행위
- 간호원과 직업윤리

李 永 福  
<이대 간호대학 교수>

③ 인간과 세계에 대한 本質과 의미를 그 價値에서 얻으려 한다.

④ 따라서 철학은 主觀的이고 계속적인 질문의 연속이며 먼저 질문의 해답도 없이 또 다른 사람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③ 모든 현상에 대한 법칙을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찾아 보려 한다

④ 따라서 과학은 客觀的이며 누가 실험을 해도 같은 결론이 나오기 마련이고 먼저의 실험을 토대로 연구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상의 概念에서 간호철학이란 간호의 가치와 목적과 의의를 찾아보는 것이겠고 간호의 지식, 기술, 절차는 과학적방법으로 터득하고 훈련해야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看護行爲 혹은 看護機能은 人間에게 직접 적용하며 인간인 간호원이 인간인 被看護人을 대상하는 만큼 思考나 學問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를 중심한 접촉과 실천을 전제로 그 업무가 형성되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내용과 성격이 간호업무를 專門職 (profession)으로 올려 놓은 것이라고 하겠다. 간호업무란 간호學의 실천이다.

간호철학으로 간호를 왜? 무엇때문에 하느냐는 해답이 나와도 그 행위와 실천에 있어서 是와 非, 正과 邪, 善과 惡, 義와 不義 등에 대한 사회적 또는 직업적 規範과 표준이 없이는 철학에서 얻은 動機와 目標에 대한 해답이 허사가 될 것이다. 또한 倫理觀이 서지 않은 사람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은 때로는 사회나 개인에게 해독을 끼칠 가능성까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미국의 철학자 존·듀웨이 (John Dewey 1859—1952)는 “과학과 기술은 본래는 中性的인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에는 美德도 惡德도 없다. 문제는 과학과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 즉 그 사람들 마음에 따라서 과학은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해독을 끼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西獨에 가 있는 많은 한국간호원 중에서 대부분은 칭찬을 받고 일을 잘하는데 일부 소수의 간호원들이 나라의 위신과 한국간호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이유는 간호의 과학적지식이나 기술의 부족보다도 그들의 직업윤리관이 정

립되지 않아서 (덜 배우고 몰라서 그렇겠지만) 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윤리에 어긋나는 처신과 행동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 서독뿐 아니라 어디서나 언제나 같은 형편이다.

## 2. 道德的行爲

윤리 즉 영어로 “ethics”라는 말은 西洋語의 ethos (풍습) 또는 ythos (품성)이라는 語源에서 온 것이고 道德 즉 영어로 “moral”이란 말은 라틴語의 mores (풍습 또는 품성)라는 말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즉 두 말의 뜻은 같은데 쓰여지는 경우가 약간 달라져서 도덕은 윤리가 객관화된 社會通念的인 상황에서 대개는 의적인 行爲와 결부해서 많이 쓰여진다.

사람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일반 생물과 공통된 성질과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 동물이 지닐 수 없는 특유한 理性能力을 가지고 있다. 이 理性의 힘이 行動 (action)과는 다른 사람으로서의 行爲 (conduct)를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동기와 목적이 있어서 의식적으로 취해진 행동을 행위라고 한다. 그런데 이 목적에는 단일목적인 경우도 있으나 여러 목적과 가능성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취해지는 행위가 있는데 이것을 도덕적행위라고 한다. 즉 윤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행위이고 그 중에서도 도덕적행위이다. 도덕적 행위는 다음 세가지 특징으로 규정지어 진다.

① 목적이 있어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의식적으로 알고 행한다. 무의식적으로 혹은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다.

② 분별적인 행위로 옳고 그른 것, 진실되고 거짓된 것, 선하고 악한 것 등의 판단과 분별에 따르는 선택행위이다.

③ 자율적인 행위로 스스로의 意思에 따라서 하는 행위이다. 즉 타인 혹은 어떠한 조건의 압력이나 위협으로 한 행위는 엄밀한 의미에서 행위자가 책임지는 도덕적행위라고는 하기 어렵다.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고 때로는 손해와 고난까지도 겪어야 되는 도덕적행위를 왜 우리는 해야되는가? 여기에는 價値觀이

라고 하는 우리들의 思想 혹은 생각이 작용을 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데 가치를 인정할 수 있기(worth doing)때문”이다. 혹 다른 각도로 설명한다면 個人의 利益을 추구하는 自我意識과 共同 혹은 社會全體의 이익을 추구하는 共同體意識과의 문제이라고도 하겠다. 人間世界에는 自己保存이라는 일반 生物界의 自然現象을 초월한 倫理 혹은 道德이라는 規範이 있어서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면서 사회전체의(혹은 어떤 일 또는 對象을 위해서) 이익을 도모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요청을 또는 스스로의 挑戰을 받고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야되는 중극적인 이유는 “人間은 社會를 떠나서 살 수 없으며 個人은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와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은 道德관념에 대한 혼란이 크다. 특히 기성세대는 전통적인 도덕관념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주려하고 새로운 세대는 革新을 의치고 이를 배격하려 한다. 그러나 改革이란 傳統을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이를 代置할만한 새로운 原理가 제시되고 그것이 널리 실천되어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질서가 잡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도덕의 수립은 과거속에 源泉을 둔 연속적인 흐름이나 묵은 價値觀이나 전통을 완전히 떠나서 수립되기 어렵고 이를 밟고 지내감으로서 생겨나는 批判과 시정을 통해서 이뤄되는 것이다.

### 3. 간호원과 직업윤리

윤리는 “사람이 그 사회적 관계 즉 인간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될 道理와 規範” 혹은 “사람이 각자의 입장에서 지켜야될 의무이행의 내용적 기준”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간호직을 우리들은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인간을 중심한 직업이라고 한다. 바로 이점이 “倫理的인 要素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기준(criteria)을 가진 모든 專門職중에서도 간호직에서 가장 윤리적실질을 중시하는 이유이다.

직업윤리의 구성은 ① 歷史的 배경 ② 사회적 현상 ③ 직업의 성격 ④ 직업인 自身등 네가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즉 윤리의 표준이나 규

범은 時代性과 社會性의 영향을 받는 고로 그 시대 그 사회의 풍습, 생활, 받아들여진 전통등 사회통념을 무시하지 못한다. 사회적변화를 떠나서 크게 비약도 하기 어렵고 그대로 남아 있겠다고 고집도 할 수 없다.

전문간호직에서 강조하는 것은 간호원은 사회적변화(Social Change)에 민감해야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20세기 중반기에 한국사회에서 일하는 전문간호원들은 이 시대와 사회를 의식하면서 전문간호직의 本質과 성격에서 벗어나지 않는 직업윤리를 준수해야 될 것이다.

간호직의 특성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그때 그때 적당하게 도와주는데 있다고 하겠다. “사람은 늘 더 좋은 건강을 원하고 있으나 자기자신을 포함한 내부적 또는 외부적 환경속에서 연속적으로 건강을 해치려는 그 어떤 압박(stress) 혹은 제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간호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간호원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질병으로 고통하는 상태에서의 입원환자는 좀더 즉각적이고 劇的이고 施術的인 도움이 필요하고, 좀 더 건강해서 질병을 미연에 방지코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나름대로 日常的이고 長期的이고 教育的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직업윤리의 표준과 범주도 간호대상자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겠다. 바로 이점이 우리 간호원들이 知性, 人格, 教養, 경험등을 토대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대상자의 요구성에 따르면서 우리들의 마음가짐, 표정, 말, 태도 또는 행위를 바르게, 선하게, 성의있게 해야되며 이것이 즉 직업윤리의 기본인 것이다.

· 윤리는 사랑과는 다르다. 나의 가족이나 친구는 사랑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보통때는 윤리적책임에 대하여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길가는 사람까지도 피차간의 인간적인 윤리가 있는 것이고 더구나 직업인에게는 직업인으로서 체계있게 받아들여지는 윤리가 있게 마련이다.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있는 환자에게 대하여 도움을 주는 입장에 있는 간호원의 윤리적 책임과 그 比重은 매우 큰 것이다. 간호적

이 奉仕職이란 뜻은 “일에 대한 補償을 받지 않고 그저 간호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간호하는 과정에 있는 동안 간호의 대상자의 유익과 편리와 福祉를 간호원 자신의 평안과 편리와 유익보다 먼저 생각하는 윤리적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간호는 봉사이며 간호원은 귀하고 유익한 일을 하노라고 자타가 말하더니 환자를 위시하여 관련된 사람들과의 윤리적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며 社會正義에 대하여 외면을 하고 직책에 대하여 최선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속한 간호직을 전문직이라고 할 명분을 상실하는 것이다.

전문직업인의 윤리는 원칙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직장을 떠난 후에도 전문직은 平生職(Life Career)라는 성격에 비추어 준수되어야 함은 私生活에 있어서도 간호원이라는 명분을 빼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윤리나 도덕은 法과는 다르다. 그러나 法의 기초는 도덕적기준에서 출발된다. 즉 도덕

적 가치관은 보편타당성이 인정될 때 사회통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權利를 갖게 되므로 한 개인의 주장으로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非道德인 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있고 그 정도가 심해서 다른 사람에게 까지 큰 피해나 손상을 입힐 때는 이것이 不法的인 행위로 규정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도덕적수준이 높은 사회나 집단에는 法條文은 많이 필요없으며 또 있더라도 犯法의 수는 적게 마련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일 하지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는데 世上에는 法으로 단속하는 일은 얼마되지 않고 대부분의 행위는 법 이전에 상식과 관습과 사회통념으로 규제되며 또한 이러한 것들의 형성과 출발은 윤리도덕과 마음과 자세가 결정지어 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간호원의 윤리는 그가 하나의 성실한 인간으로서 또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확고한 윤리관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맡은바 직책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비로소 실천되고 양양되는 것이다.

### <안내공고>

## 갱신 면허증 交付 누락자에게

1973년 11월 9일부터 실시된 의료인 면허갱신업무가 매듭지어져 신 면허번호가 기재된 신 면허증이 1975년 1월 25일부터 일제히 교부되고 있습니다.

아직 신 면허증을 교부받지 못했거나 면허증갱신업무에 의문이 있는 회원은 소속지부에 비치된 간호원면허갱신발급자명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누락자는 소속지부를 통하여 갱신 신청 및 보완서류를 완비하여 누락자가 없기를 바랍니다.